여친도 몰래(?) '프러포즈'한 사랑꾼

한 달 동안이나 프로포즈를 한 영국 남성이 화제이다. 이 남성의 여자친구는 자신이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것도 몰랐다. 그럴 수 있을까?

사연의 주인공인 에디 오코로(30)는 올 초 여자친구인 켈리 리드(28)에게 결혼 프러포즈를 계획했다. 하지만 흔하고 뻔한 프러포즈를 하기는 싫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바로 '여자친구 몰래하는 프러포즈' 였다.

지난 2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오코로는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는 여자친구의 손바닥 위에 프러포즈 반지를 살포시 올려놓거나, 여자친구와 셀프 카메라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반지를 숨겨놓고 사진에 나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프로포즈를 했다. 그의 이런 프로포즈는 한 달 동안이나 계속됐다.

그 동안 여자친구는 자신이 받을 프러포즈 반지를 지척에 두고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로코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과정을 공개해 왔다는 사실이다. 오코로는 여자친구는 알지 못하도록 사진을 올렸고, 그의 비밀스럽고 장난기 가득한 프러포즈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점차 늘었다. 그가 직접 올린 '사전 프러포즈' 사진들은 모두 6만 8,000건이 넘는 '좋아요' 를 받았고,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그의 프러포즈가 성공하길 한 마음으로 기원했다.

그리고 최근, 오코로는 왼손에 반지를 낀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오코로는 조만간 자신의 SNS 계정에 '프러포즈' 의 모든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제약사 실수로 늑대인간 된 아이들

스페인에서 16명의 아기가 잘못된 설명서가 부착된 약 때문에 다모증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페인 A 제약사의 실수로 탈모 치료제인 '미녹시딜' 이 위 궤양·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사용되는 '오메프라졸' 로 뒤바뀌어 판매됐다.

매체는 이 사고로 잘못된 약을 먹은 16명의 아기가 얼굴 등 온몸이 털로 뒤덮이는 '늑대인간 증후군(werewolf syndrome)' 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늑대인간 증후군' 은 얼굴과 온몸에 털이 과도하게 자라나는 증상을 말한다.

당시 아이들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궤양을 치료하는데 주로 쓰이는 오메프라졸을 처방받았지만, 약국에서 이 약을 받는 과정에서 탈모치료에 사용되는 미녹시딜을 받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이 조사한 결과, 해당 약을 제조·유통한 제약사가 유통 과정에서 두 약이 뒤바뀌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회사는 표지가 뒤바뀐 약품을 납품했고 약사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미녹시딜을 오메프라졸로 알고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아동의 한 어머니는 "딸에게 약을 먹인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약의 표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면서 "아이에게 이상 증상이 생기는 동안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보건 당국은 문제의 제약회사에서 생산된 약품을 수거해 유통되지 않도록 명령하는 한편, 제약회사의 사업면허 정지 및, 의약품 제조와 수입, 유통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피해 아기들이 미녹시딜 부작용 중 하나인 다모증을 겪고 있다며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은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학생들이 머리에 '종이상자' 쓴 사연

최근 멕시코의 틀락스칼라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기이한 풍경이 목격됐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30여 명의 학생들은 저마다 머리에 종이상자를 눌러쓰고 있다. 시험 때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담임교사가 고안한(?) 방법이었다. '종이헬멧' 을 쓰게 한 교사 루이스 후아레스 텍시스는 "재밌게 컨닝을 막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 이라며 "학생들도 모두 이 방법에 동의했다." 고 했지만 학부모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익명을 원한 한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모두 종이상자를 쓰게 한 건 모두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여긴 것" 이라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생들이 큰 모멸감을 느꼈다." 며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 분노한 학부모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단체행동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성명에서 "재미로 아동학대를 일삼는 교사의 지도를 받고 우리의 자식들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자랄지 의문" 이라며 학교에 문제의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는 "장차 아이들이 자라면 교실에서의 추억으로 기억할 정도의 일" 이라며 "교사를 파면하라는 건 지나친 요구 같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들을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교육하고 있다." 며 "인권교육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들은 "학교가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며 학교 측의 태도를 비판했다.